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군산시, 24시간 비상체계·역학조사·전수조사 실시

군산시는 인근 지역의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 A(28)씨가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경 군산시 소재 대박주유소를 방문했다. 또 11시경 나운동 고래설렁탕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군산

시 보건소 등과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 파악 및 추가 관련 사항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감염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이 시간과 동선이 겹치는 군산시민 중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 1339 또는 보건소 463-4000으로 전화해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설명과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 다녀오신 분들은 더 이상의 확산예방을 위해 스스로 접촉을 피하고 최소한의 동선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지난 19일 군산시 동선과 겹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해 감염예방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청년 소자본 창업지원 푸드트레일러 운영자 모집

군산시, 내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군산시는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푸드트레일러 영업기회와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군산밤 푸드트레일러 운영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모집 대수는 총 4대로 판매 품목은 휴게음식점 또는 분식점 품목이고 담배·주류·일회용 식품 판매는 금지된다.



군산시는 2020년 군산밤 푸드트레일러 운영자를 모집하며 최종 영업자를 3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요리 평가를 통해 ▲가격·메뉴 적정성 ▲조리법 청결성 ▲위생 및 청결 등을 평가해 고득자 순으로 최종 영업자를 3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사업자등록, 위생교육, 영업신고 등 사전절차를 거쳐 사용개시일(지정일)로부터 1년간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다. 갱신조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하다.

서광순 관광진흥과장은 "군산밤 푸드트레일러는 시간여행마을의 야간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라며 "청년 소자본 창업기회 지원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소규모 공영·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푸드트레일러 사업을 활성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상반기 최대 규모 예산 신속집행

익산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익산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상반기 재정집행 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

으며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들이 참석해 사업별 집행추진계획과 집행대책을 보고했다.

시는 올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60% 달성을 위해 (행안부 목표 57%) 상반기에 목표액 4,344억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이번 신속집행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및 일자리 사업

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소비부문 인건비, 물건비 등은 상반기 집행가능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고 투자부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입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단계별 집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행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긴급급할 소요기간 단축 공고, 선금급 지급 70%이내 지급, 계약관련 심사기간 단축 등을 실시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본격 시행

익산시, 상해시 최대 5000만원 보장... 향후 1년마다 보험계약 갱신

익산시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최근 대표보험사로 메리츠화재상해보험(주)과 계약을 체결하고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이며, 향후 1년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해 지속적으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이 상해보험 시행으로 약 2,500명 정도의 청년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상해보험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청년들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되고 전역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질병 입원시에는 1일 3만원의 보합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골절 및 화상 진단금으로 해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백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위상성절단 진단비로 1백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원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을 통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청년 장병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가 취약계층 핵심직무 향상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며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 퇴직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최경숙)는 2020년 군산 고용위기자회 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핵심직무향상 직업훈련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업훈련사업은 총 3개 과정으로 산단형(ERP)물류·생산관리 사무인력 양성과정,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전문가 양성과정이다.

취약계층 핵심직무향상 직업훈련은 지역 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 퇴직자를 위한 훈련으로 경영·회계·사무 분야, 돌봄·서비스 분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직무 중심 실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직무향상 직업훈련을 통해 실업 장기화로 인한 고용단절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시스템 구축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빠르게 자체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농가불편 최소화해 나갔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1,500㎡이하) 농가는 연2회, 신고대상(1,500㎡이상) 농가는 연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 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지난 1월초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관내 축산 농가의 검사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사무소와 농민상담소 축산농가에 검사용 시료봉투를 배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은 깨끗한 시료봉투에 500g 정도 시료채취 후 퇴비 성분검사 위탁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의뢰하면 검사 시행 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액비관리대상 미작성이나 미



보관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혼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사전홍보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시비 18억원을 투입해 695㎡ 규모의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토양, 수질, 농약 등 농촌환경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검정 기능을 강화해 분석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취약계층 핵심직무 향상 직업훈련사업' 운영

군산시가 취약계층 핵심직무 향상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며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 퇴직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최경숙)는 2020년 군산 고용위기자회 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핵심직무향상 직업훈련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업훈련사업은 총 3개 과정으로 산단형(ERP)물류·생산관리 사무인력 양성과정,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전문가 양성과정이다.

취약계층 핵심직무향상 직업훈련은 지역 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 퇴직자를 위한 훈련으로 경영·회계·사무 분야, 돌봄·서비스 분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직무 중심 실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직무향상 직업훈련을 통해 실업 장기화로 인한 고용단절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정현을 시장, 오성배 민간위원장은)는 지난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 주민 욕구와 특성을 반영해 발굴한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 계획과 2019년 지역사회보장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심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먼저 29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한 지역복지 특화사업은 총 86개 사업에 2억7795만3000원 규모이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실무 검토를 실시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복지 특화사업의 방향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